

2 창간 70주년 특별 대담-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경희의 정신, 대학주보의 기록으로 남다

“대학언론, 현실 넘어 꿈꾸는 자 역할도 해줬으면”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대학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이했다.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은 학부 시절부터 교수, 총장, 그리고 이사장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약 40년 동안 대학주보와 함께했다. 지난 7일 만난 조 이사장은 학생기자들과 진행하는 오랜만의 소통에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학주보의 독자이기도 했고, 발행인이기도 했던 조 이사장과의 대담이다.

Q. 대학주보가 창간 70년을 맞았습니다. 학부 시절부터 교수, 총장 등 다양한 위치에서 경희와 함께한 이사장께 대학주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회고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대학주보와 함께 해왔어요. 대학 졸업 후 군 복무 3년, 대학원 유학 생활 8년, 타 대학서 강의하던 2년을 제외하면 40여 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특히 총장 재임 시절 경희의 역사를 살피면서 알게 된 대학주보의 활동상은 비교적 기억에 뚜렷해요.

시대를 일별해 보면,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 건립된 신생 대학의 비전과 포부, 그 후 30~40여 년 지속된 세계시민·민주시민에 관한 관심, 그리고 지난 20~30년 이어져 온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를 열어가 갈 대학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 그런 경희의 역사와 함께, 대학주보는 그간 학사, 행정, 구성원 복지, 대학 문화, 국제화와 같은 다양한 사안에 걸쳐 훌륭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해요. 창간 7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Q. 대학주보가 대학 언론으로 담당해 온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 보시는 대학주보 역할 중 가장 마음이 가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희 역사와 함께해 온 대학주보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경희의 미래 지향적 발전상을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과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마땅히 지녀야 할 대학의 공적 책무에 관한 관심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조 이사장은 대학주보의 역할에 대해 “하나는 경희의 미래 지향적 발전상을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과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마땅히 지녀야 할 대학의 공적 책무에 관한 관심으로 이해해 왔다”고 말했다.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해요. 총장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대학 연찬회가 있었어요. 5박 6일간 ‘소통과 창조의 문화세계, 개교 60주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진행했어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연일 대학 발전을 위해 열띤 대화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대학주보가 동행 취재했지요.

또 다른 일화는 2011년입니다. 경희가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유엔에 제안해 유엔 총회가 이를 공식 채택한 지 3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뉴욕 유엔본부와 평화의 전당이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돼 “Give Peace Another Chance”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개최됐어요. 행사 전 과정을 취재했던 대학주보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를 소개했어요.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많은 구성원이 대학주보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대학주보는 늘 경희의 역사와 함께했어요. 구성원의 문제의식과 필요, 우리 사회와 시대를 향한 경희인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아 왔지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Q. 독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대학주보의 친밀한 독자라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총장 시절, 주보가 발간될 때 거의 매주 대학주보를 읽어봤지요. 구성원, 특히 학생 관심사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고 개선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그런저런 생각과 함께 기사, 칼럼 등을 접했어요. 때로는 오늘처럼 대담을 통해 대학 현안에 관한 생각과 시대의 나아갈 길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던 기억도 납니다. 대학주보가 대학 행정과 구성원을 잇는 훌륭한 매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아쉬운 부분’은 없지만, 시대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더 주목했으면 하는 방향은 있어요. 문명사적 관점에서 향후 몇 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대 전환의 기류는, 말 그대로 전환적이죠. 온 나라와 인류의 실존적 삶이 걸려 있는 만큼, 시대변화에 주목하는 일은 우리 일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에 관한 기획물을 연재한다면, 예단하기 쉽지 않은 미래를 헤쳐가야 할 미래세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Q. 저희 신문에 총장 취임 기념 인터뷰를 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대학주보 1375호 1면/2006.11.27.) 당시, 대학의 학술기관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대학 행정에 분권과 자율 체계를 정착시키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부분에서 성취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본연의 책무인 학술 연구의 탁월성에 관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무엇이 학문의 탁월성인지, 당시 제기된 사회적 관점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때 판단은 한편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의 현실적 탁월성은 잘 관리해 가면서, 궁극적 목표인 인간과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기반으로 배움과 나눔, 지구적 실천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대학 행정의 역동성, 미래 지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 후 생각과 논의를 종합해, “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 세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 사회”라는 대학 운영 기조를 세웠어요. 속의 끝에 대학 본부는 대학 행정의 운영 기조를 잘 관리하고, 단과대학은 학문과 교육, 실천 부문의 실질적 내용의 깊이를 더해간다는 방향에 중점을 모았어요.

그 기간 경희는 학술과 교육, 실천 면에선 적지 않은 성취를 이뤘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지요.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대학 행정, 전문 행정을 위한 문화와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Q. 위와 관련하여 2008년 11월 대학주보와 함께 한 인터뷰(대학개혁 5대 프로젝트/대학주보 1422호 5면/2008.11.10.)에서는 연구와 교육, 복지, 국제화, 행정 등 5개 분야에서 발전의 청사진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 역시 이 주제로 18회의 연재를 의욕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지금 경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이후 약 5년간 경희는 역동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훌륭한 교수진을 이례적으로 많이 모셨고, 교수·학생 연구 지원을 확대해 갔어요. 후마니타스 칼리지, 미래혁신원, Global Collaborative, Space 21 사업도 그 기간 출범했어요. 대학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 Conference of NGO(CoNGO)와 같은 세계 시민사회 협의체와 세계시민포럼(World Civic Forum, WCF), 세계시민청년포럼(World Civic Youth Forum, WCYF)을 개최했어요. 그 기간 대학주보 역할도 대단히 컸어요.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획 연재물을 구성원과 많이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모든 노력이 모여,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희는 국내 외적으로 가장 빠르게 도약한 대학 중 하나였어요. 학계 평판, 사회적 평판도 많이 개선됐지요. 그 기간 대학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았던 구성원 모든 분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체험했던 경희의 역량과 저력이 더 크고 멋진 경희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이사장께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을 좀 더 풀어서 들을 수 있을까요.

3면에 계속 →